



NH농협생명 ‘NH온라인생활레저보험’ 출시

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.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~2018년 여름철 3개월(6~8월에 물놀이로 인해 총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.

특히, 전체 사망자의 75%(123명)가 여름휴가 기간(7월 중순~8월 중순)에 집중됐다.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휴가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든든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장책 점검은 필수다.

NH농협생명(대표이사 홍재은)의 NH온라인생활레저보험(무배당)은 저렴한 보험료로 생활 속 재해와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으로, 휴가를 떠나는 여행객에게 안성맞춤이다.

예를 들어, 휴가 중 계곡에서 미끄러진 사고를 당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치명적 재해 수술 시 1회당 200만원의 ‘치명적재해수술자금’, ‘재해골절치료급여금’ 10만원, ‘깁스치료급여금’ 5만원 등 총 2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.(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)

이 밖에도 응급실 내원진료비, 아킬레스힘줄 손상 수술자금 등 생활 속 재해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포함했다. 또 ▲ A형 간염 ▲ 파상풍 ▲ 홍역 ▲ 쯤쯤가무시증 등 약관에서 지정한 특정법정감염병 진단 시 1회당 20만원씩 보장한다.(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)

연간 1회 보험료 납부로 1년간 보장을 받는 상품으로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. 보험료는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으로 40대 남성이 1만7천100원, 40대 여성 1만천200원이다.

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“1년 중 가장 큰 설렘을 안고 떠나는 휴가철인 만큼,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”며 “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챙겨주는 온라인보험도 휴가철 준비물로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 ▼